2012학년도 경찰대학 1차시험 (언어영역)

※ 총 12쪽 50문항입니다. 각 문항의 답을 하나만 고르시오.

1. 다음 중 어법에 맞고 가장 자연스러운 것은?

① 심지어 친구들까지도 나를 얌전 내지는 말이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

② 여행은 자칫하면 좁아지기 쉬운 자기의 시야를 넓히는 데에도 좋은 것이다.

③ 그러나 한 가지 소득이 있었다면 오랜 만에 만나는 친구들이 너무나 변해 있다는 점이었다.

④ 내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세상 사람들이 최고의 대학이라는 경찰대학에 입학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

⑤ 인생의 험난한 길을 헤쳐 나가야만 할 우리들은 자연을 과대 신앙하였던 구태의연한 자세를 옳은 일이라 달관시할 수 없다.

[2~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보기>

두 자음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서 그 중 하나, 또는 자음 모두 바뀌는 현상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을 자음 동화라고 한다. 자음 동화 현상에는 비음이 아닌 소리가 비음 'ㅇ, ㄴ, ㅁ'을 만나 비음으로 바뀌는 ㉠비음화와, 설측음이 아닌 소리가 설측음 'ㄹ'을 만나 설측음으로 바뀌는 ㉡설측음화가 있다. 또한 'ㄷ'이나 'ㅌ'이 'ㅣ'를 만나서 'ㅈ'이나 'ㅊ'으로 발음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를 ㉢구개음화라고 한다. 구개음화는 뒤따르는 형태소가 실질 형태소인 경우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두 자음이 만나면서 된소리가 아닌 소리가 된소리로 바뀌는 경음화 현상은 다양한 환경에서 나타나는데, 이들이 모두 표준 발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한편, 두 음운이 만날 때 원래 없던 소리가 첨가되는 ㉣음운 첨가 현상도 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두 개의 형태소가 결합해서 합성어를 만들 때 발생한다.

2. ㉠~㉢의 예로 적절한 것끼리 묶인 것은?

	㉠	㉡	㉢
①	꽃만	발랄	굳이
②	급류	칼날	꽂히다
③	삶는다	광한루	벼훑이
④	읽는다	줄넘기	같이
⑤	웃는다	훌륭하다	닫히다

3. ㉣의 예가 아닌 것은?

① 솜이불 ② 늑막염 ③ 식용유 ④ 한여름 ⑤ 박람회

4. <보기>의 밑줄 친 ㉠~㉤의 예들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합성동사와 합성형용사는 합성명사에 비하면 수가 적고 구성 방식이 단조로운 편이지만,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명사+용언 어간'의 방식으로 이루어지거나, ㉡'용언 어간+용언 어간'으로 구성된다. 또한 ㉢'용언의 활용형+용언 어간'이나, ㉣'부사+용언 어간'으로 이루어지기도 한다. 간혹 ㉤동일한 형용사 어간 사이에 '디'를 개입시켜 일종의 반복합성어를 만들기도 한다.

① ㉠ 겉늙다 ㉡ 검푸르다
② ㉡ 굶주리다 ㉢ 뛰어나다
③ ㉢ 알아보다 ㉣ 쉬이보다
④ ㉣ 앞세우다 ㉤ 맑디맑다
⑤ ㉤ 높디높다 ㉠ 낯설다

5. <보기>의 ( )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은?

<보기>

- 신랑감의 ( )이/가 두툼하고 복스럽게 생겼네.
- 학생들이 방학을 ( )꼽아 기다린다.
- 이번 일의 결과는 전적으로 철수의 ( )에 달려 있다.
- 농번기에는 너무 바빠서 일곱 살배기 ( )(이)라도 빌려야 할 판이다.

① 손 ② 도움 ③ 소유 ④ 역량 ⑤ 손가락

6. <보기>의 '관형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 철수는 새 옷을 친구에게 주었다.
- 그 사람은 허튼 말을 하고 다닐 사람이 아니다.
- 그는 자기 일 밖의 다른 일에는 관심이 없다.
- 그녀는 해변 풍경을 좋아하였다.
- 사람의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는 외딴 집이 나타났다.
- 회사에서도 책임의 일부를 져야 한다.

① 관형어 '새'는 항상 체언이나 체언상당어를 수식한다.

② 체언에 관형격 조사가 결합되어 관형어가 되기도 한다.

③ 관형어는 수식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언제나 생략이 가능하다.

④ '허튼'과 '다른', '외딴'은 관형사가 문장 속에서 관형어로 쓰인 것이다.

⑤ 체언과 체언이 연결될 때, 앞의 체언이 별도의 조사 없이 관형어가 될 수 있다.

7. <보기>의 외래어 표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

아카시아(acacia), 라켙(racket), 후라이팬(frypan), 규우슈우(九州), 슬라브고로드(Slavgorod)

① 외래어의 1음운은 원칙적으로 1기호로 적기로 하여서 '라켙'이 옳아.

② 일본어의 장모음은 따로 표기하지 않기로 하였으니 '규슈'라고 해야 해.

③ 외래어는 원음에 가깝게 적도록 하였으니 '슬라브고로드'가 옳은 표기야.

④ 파열음 표기라도 된소리로 발음되는 경우에는 '아까시아'처럼 적어야 해.

⑤ '후라이팬'으로 적는 것은 이미 굳어진 외래어는 관용을 존중하기로 하였기 때문이야.

8. <보기>를 고쳐 쓰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훈민정음'의 서문에는 훈민정음의 제작 목적이 제시되어 있다. '사롬마다 힉뼈 수ᄇᆡ 니겨 날로 ᄡᅮ메 便安킈 ᄒᆞ고져 홇 ᄯᅳ르미니라', 즉 사람들이 일상에서 문자 생활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게 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훈민정음으로 기존의 한자를 완전히 대체하려고 한 것은 아니다. 훈민정음 창제 이후에 ㉢제조된 책 가운데 한자 없이 순수하게 훈민정음으로만 쓰인 책은 ㉣없다. 당시의 지배층들은, 한자는 한자대로 훈민정음은 훈민정음대로 그 존재 가치를 인정함으로써 한자와 훈민정음이 그 나름의 영역에서 ㉤쓰여지도록 하는 이중적인 문자 생활을 추구한 것은 아닐까?

① ㉠ : 문장의 의미를 고려하여 '하는'과 '데'를 띄어 써야겠어.
② ㉡ : 앞 문장과의 연결 관계를 고려하여 접속 표현을 '결국'으로 바꾸어 써야겠어.
③ ㉢ : 어휘 사용이 적절하지 않으므로, '간행된'으로 바꾸어 써야겠어.
④ ㉣ : 근거에 해당하는 문장임을 고려하여 '없다'를 '없기 때문이다'로 바꾸어 써야겠어.
⑤ ㉤ : 피동 표현이 중첩되어 사용되었으므로, '쓰이도록'으로 고쳐야겠어.

9. <보기>의 문장에 담긴 문법적인 정보에 따라 화자의 심리적인 태도를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 네가 합격하였다니 여간 반갑지 않구나.
㉡ 일본팀이 브라질팀에게 축구를 지고 말았어.
㉢ 길을 건너던 강아지가 차에 치였어!
㉣ 김 과장은 출장을 떠나서 자리에 없습니다.
㉤ 어머니가 아기에게 예방주사를 맞혔다.

① ㉠ : 부정법을 사용한 것은 합격한 사실이 반갑지 않은 것을 뜻하는 게야.
② ㉡ : '지고 말았어'라는 표현의 사용으로 보아 일본팀이 이기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관전을 하였군.
③ ㉢ : 피동문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 자동차보다는 차에 치인 강아지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군.
④ ㉣ : 압존법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 듣는이가 김 과장보다 윗사람이어서 언어적인 대접을 한 것이로군.
⑤ ㉤ : 사동문의 사용은 피사동주인 '아기'보다는 사동주인 '어머니'에 관한 정보 전달에 주된 목적을 둔 것 같아.

10. <보기>의 목차에 따라 글을 쓰고자 한다. 글쓰기에 대한 의견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제목: 전산망 보호를 위한 방화벽 시스템의 도입에 대한 제안
Ⅰ. 전산망 보호를 위한 방화벽 시스템의 개념
Ⅱ. 방화벽 시스템의 필요성
Ⅲ. 방화벽 시스템의 종류
Ⅳ. 방화벽 시스템의 문제점과 한계
Ⅴ. 방화벽 시스템의 운영 비용

① 보유 정보가 해커들로부터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Ⅰ에서 이루어져야지.
② 내부 네트워크의 자원 및 정보에 대한 해커들의 불법 침입으로 인한 피해 사례를 Ⅱ에서 다루는 게 좋겠어.
③ Ⅲ에서는 전산망 보호를 위한 방화벽 시스템을 종류별로 살피면서 각 시스템의 장점과 단점도 제시할 수 있어야지.
④ Ⅳ의 내용은 이 글의 흐름으로 보아 목차의 하나로 배치하기에는 문제가 있어. 방화벽 도입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결론을 별개의 장으로 설정하고, 거기에서 간단하게만 언급해야 할 것 같아.
⑤ Ⅴ의 내용은 시스템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테니, Ⅲ에서 동시에 다루는 게 좋겠어.

[11～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인상주의 회화는 흔히 빛의 그림이라고 불린다. 그만큼 밝고 화사하다. 하지만 그 밝은 빛을 위해 화가들은 세상의 몰이해와 비난에 맞서 싸워야만 했다. 화면의 빛 못지않게 현실의 어두운 그림자가 그들을 에워싸고 있었기 때문이다. 모네는 루앙 대성당의 벽화를 그리면서 스트레스가 대단했다고 한다. 그는 부인에게 쓴 편지에서 다음과 같은 고백을 했다. "㉠얼마나 힘든 작업인지 밤새 악몽만 꾼 적이 있소. 대성당이 무너져 내리는데, 아 그것이 푸른색, 분홍색 혹은 노란색으로 보이지 뭐요."

인상주의의 화가들은 빛의 표현을 통해 색채를 해방시켰다. 모네는 대성당이 무너지는 모습마저 색채로 인식하였다. 모네가 노년에 그린 수련 연작을 보노라면 대상으로부터 해방된 색채가 완연한 추상의 세계를 띠고 있음을 볼 수가 있다. 이 경지에 이르면 회화의 질서는 자연의 질서로부터 완전히 독립한다. 르네상스 이래 오랜 사실주의의 조형 질서를 발전시켜 온 서양 미술은 이전까지 한 번도 자연의 질서를 벗어나 본 적이 없었다. 인상주의 이후에 이르러 자연의 질서보다는 자유롭고 독립적인 길을 택하게 된 것이다.

모네가 묘사한 꿈속의 풍경처럼, 고통과 환희의 이중주는 인상주의 화가들만의 것은 아니었다. 인상주의 이래 현대 예술의 개척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번번히 세상의 몰이해와 비판에 직면했고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해야만 했는데 뛰어난 작품을 남긴 뒤, 살아서도 그 영광을 누린 예술가들이 있지만, 죽어서야 환희의 찬가를 들을 수 있었던 이들도 적지 않았다.

현대 예술 이전에는 뛰어난 미술가가 사후에 혹은 뒤늦게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 일이 그리 흔하지 않았다. 루벤스와 같은 고전의 대가는 ⓑ일찍이 재능을 인정받았고 그에 합당한 영예를 누리며 살았다. 그러나 현대 예술의 주도자들은 사후 혹은 ⓒ늘그막의 영광을 위해 길고 어두운 무명과 배척의 터널을 지나야 했다. 근대가 선물한, 보다 진전된 개인의 자유로 인하여 미술가들이 자신의 관심사와 내면을 그 어느 때보다 자유롭게 표출할 수 있게 되었지만 후원자의 주문이나 요구에 따라 작품을 제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적 필요와 욕구에 따라 주체적이고 세련된 조형과 미학을 추구하게 된 것이다.

이처럼 미술가들이 취미, 판단과 창의의 영역에서 커다란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은 모네에서 피카소에 이르기까지 이들 전위 미술가들의 작품에 이전 선배들의 것과는 다른 특질이 주어지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후기 인상주의 화가인 고갱과 세잔의 그림에는 바로 그 새 질서의 구축에 대한 전환기적 열망이 ⓓ또렷이 담겨 있다. 고갱은 열대의 원색을 바탕으로 육안이 아니라 심안으로 본 세계의 색채를 구사했고, 세잔은 대상의 형태를 단순화한 뒤 공간의 구조마저 의도적으로 ⓔ어그러뜨렸다. 마티스는 고삐 풀린 색채가 그림의 형식과 주제를 통괄하는 야수파의 길을 열었고, 피카소는 대상과 공간을 극단적으로 분해한 뒤 내키는 대로 재조립하는 입체파의 길을 열었다. 잭슨 플록이 말한 것처럼, 이제는 "㉡회화는 회화 나름의 삶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시대로 접어든 것이다.

11.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① 고전 미술의 대가 중에는 당대에 인정을 못 받았으나 후대에 영예를 누리는 경우가 많았다.

② 전위 미술가 이전의 고전적 작가들은 내적 욕구에 따라 주체적이고 세련된 조형과 미학을 추구하였다.

③ 르네상스 시대의 예술가들은 사실주의적 조형을 발전시켰지만 색채에 있어서는 심안의 세계를 중시하였다.

④ 입체파 미술가들은 대상의 형태를 단순화시킨 뒤 색채의 대조를 통하여 자연의 질서로부터 완전히 독립하였다.

⑤ 현대 예술의 선구자들은 이전 시대에 비해 당대의 후원자나 대중의 취향이나 감성으로부터 많이 떨어져 있었다.

12. 위 글의 전체 문맥을 고려할 때, ㉠이 갖는 의미를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은?

① 세상의 몰이해와 비판　② 고통과 환희의 이중주
③ 어두운 무명과 배척의 터널　④ 그림의 형식과 주제의 통괄
⑤ 새 질서를 위한 전환기적 열망

13. ㉡에서 함의하고 있는 것과 가장 거리가 먼 예술가는?

① 모네　② 루벤스　③ 고갱　④ 마티스　⑤ 피카소

14. ⓐ~ⓔ 중, 맞춤법에 어긋나는 것은?

① ⓐ　② ⓑ　③ ⓒ　④ ⓓ　⑤ ⓔ

[15~1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04년 여름, 멕시코 만에서 세력을 일으킨 허리케인이 플로리다를 휩쓸고 대서양으로 빠져나갔다. 그 결과 22명이 목숨을 잃고 110억 달러에 이르는 손실이 발생했다. 뒤이어 가격 폭리 논쟁이 불붙었다. 올랜도에 있는 어느 주유소는 평소에 2달러 하던 얼음주머니를 10달러에 팔았다. 전력 부족으로 8월 한여름에 냉장고나 에어컨을 사용하지 못하던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그 값을 고스란히 지불해야만 했다. 가정용 소형 발전기를 취급하는 상점에서는 평소 250달러 하던 발전기를 2000달러에 팔았다. 또한 일흔일곱의 할머니는 나이 든 남편과 장애가 있는 딸을 데리고 허리케인을 피해서 모텔에서 묵었다가 하루 방값으로 160달러를 지불했다. 평소 요금은 40달러였다.

주민들은 바가지요금에 분통을 터뜨렸다. 한 신문은 '폭풍 뒤에 찾아온 약탈자'라는 머리기사를 실었다. 플로리다 주 법무장관도 같은 생각이었다. "기가 막힐 일이다. 허리케인이 지나간 뒤에 남의 고통을 이용해 먹으려는 사람들의 탐욕이 도를 넘었다." 플로리다에는 가격폭리처벌법이 있었는데 허리케인이 지나간 뒤로 법무장관 사무실에 2000건이 넘는 피해 사례가 접수되었다. 이 중에는 소송에 승리한 경우도 있었다. 한 숙박업소는 벌금 7만 달러를 내고 추가로 받은 숙박료를 투숙객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가격폭리처벌법을 법무장관이 집행하려고 하자 일부 경제학자들은 해당 법에, 그리고 주민들의 분노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반박한 것이다. 중세의 철학자나 신학자들은 전통이나 물건 본래의 가치로 결정되는 '공정 가격'에 따라 물물교환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경제학자들이 지켜본 결과는, 근대 이후에 세상이 시장 중심의 사회로 바뀌기 시작하면서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었을 뿐, 공정 가격 따위는 존재하지 않은 듯했다.

경제학자들은 가격의 폭리가 플로리다 주민에게 어떠한 이익을 가져다주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했다. 그들은 "가격이 사람들에게 익숙한 수준보다 현저히 높을 때" 가격 폭리라는 혐의가 생기지만, 어쩌다 익숙해진 가격 수준이 도덕적으로 신성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 가격은 허리케인의 습격을 비롯해 다양한 시장 상황에 의해 형성되는 다른 가격보다도 더 특별한 가격은 아니라고 하였다. 그들에 따르면 얼음, 발전기, 모텔의 방 가격이 높아지면 수요자는 소비를 억제하고 공급자는 허리케인 피해를 입은 먼 곳까지도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려는 욕구가 강해지는 장점이 있다는 것이다. 뜨거운 8월에 플로리다가 정전되었을 때 얼음주머니 가격이 10달러라면 제조업자들은 얼음을 더 많이 생산해서 나르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비싼 값이 전혀 부당하지 않다면서 그것은 구매자와 판매자가 서로 교환할 물건에 부여하기로 한 가치일 뿐이라고 경제학자들은 설명을 하였다.

그런데 허리케인이 지나간 뒤에 일어난 가격 폭리에 관한 논쟁은 우리들에게 다음과 같이 어려운 질문을 던지고 있다. ㉡재화와 용역을 판매하는 사람이 자연 재해를 이용해서, 시장이 견디기만 한다면, 어떤 가격을 불러도 상관이 없는가? 가격 폭리 금지가 구매자와 판매자의 자유로운 거래를 방해할지라도 주정부는 가격 폭리를 금지해야만 하는가?

15. 가격폭리처벌법에 찬성 또는 반대하는 주장의 근거로 적절한 것끼리 묶은 것은?

<찬성>	:	<반대>
① 자유의 존중	:	다수의 행복
② 다수의 행복	:	미덕의 추구
③ 자유의 존중	:	미덕의 추구
④ 미덕의 추구	:	자유의 존중
⑤ 자유의 존중	:	미덕의 행복

16. <보기>의 주장과 가까운 견해를 지닌 사람을 위 글에서 찾으면?

<보기>

장사꾼을 악마로 만들어 비난한다고 해서 재해 지역의 복구 속도가 빨라지지 않는다.

① 경제학자들　② 구매자와 판매자
③ 플로리다 주 법무장관　④ 중세 철학자와 신학자들
⑤ 소송을 건 플로리다 주민

17. ㉠의 문맥적 의미에 가장 가까운 것은?

① 썩어도 준치　② 울며 겨자 먹기
③ 뚝배기보다 장맛　④ 도랑 치고 가재 잡기
⑤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

18. ㉡의 질문이 의미하는 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구매자와 판매자들이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묻는 말이다.

② 폭풍 뒤에 찾아온 약탈자들을 막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이 필요한지를 묻는 말이다.

③ 재난 상황에서 사회 구성원들이 어떤 원리로 움직여야 하는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말이다.

④ 어떻게 하면 시장이 공급업자들의 사기를 북돋워 사람들이 원하는 물건을 부지런히 공급할 수 있을지를 묻는 말이다.

⑤ 다양한 시장 상황에서 형성되는 다른 가격들을 공정 가격으로 환원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법적 조치가 필요한지를 묻는 말이다.

【19～2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사내는 이미 여인의 소리를 듣고 있지 않았다.

그는 또다시 그 어릴 적의 이글거리는 태양볕을 머리 위에 뜨겁게 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그 아비 아닌 아비가 되어 버린 ⓑ옛날 사내의 소리를 듣고 있었다.

어미를 잃고 난 소년이 사내의 그 소리 구걸길을 따라 나선 지도 어언 십여 년을 흐르고 있었다.

사내는 채 철도 들지 않은 계집아이와 소년을 앞세우고 고을 고을 소리를 팔며 떠돌아다니고 있었다.

그러면서 사내는 항상 그의 그 어린것에게도 소리를 시키는 게 소원이었다.

하지만 어린 녀석은 그저 마지못해 소리를 흉내 내는 시늉을 해보일 뿐, 정작으로 그것을 익히고 싶은 생각이 조금도 없었다.

사내는 마침내 녀석을 단념하고 이번에는 그보다도 더 나이가 어린 계집아이 쪽에 소리를 배워 주기 시작했다. 계집아이에겐 소리를 시키고 사내 녀석에겐 북장단을 치게 했다. ㉠재간이 좀 뻗친 탓이었을까? 계집아이 쪽은 신통하게도 소리를 잘 흉내 내었고, 목청도 제법 들을 만했다. 사람들이 모인 데서 아비 대신 오누이가 소리를 놀아 보여서 치하를 듣는 일까지 생기기 시작했다.

[A] 사내는 끝내 나어린 오뉘 소리꾼을 만들기가 소원인 것 같았다. 하지만 그 어린 사내 녀석은 끝내 아비의 뜻을 따를 수가 없었다. 그는 오히려 사내와는 정반대의 생각을 품고 있었다. 언제부턴가 그는 자기의 손으로 그 나이 먹은 사내와 사내의 소리를 죽이고 말 은밀한 계획을 꾸미고 있었다. 어미를 죽인 것이 바로 사내의 소리였다. 언젠가는 또 사내가 자기를 죽이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항상 녀석을 떨리게 했다. 소리를 하고 있을 때밖엔 좀처럼 입을 여는 일이 드문 버릇이나 사내의 그 말없는 눈길이 더욱 더 녀석을 두렵게 했다. 어미의 원한을 풀어 주고 싶었다. 사내가 자기를 해치려 들기 전에 이쪽에서 먼저 사내를 없애 버려야만 했다. 사내를 두려워하면서도 그의 곁을 떠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마음속에 그런 음모가 꾸며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사내가 두렵기 때문에 그가 시키는 대로 북채잡이 노릇까지는 터놓고 거역을 할 수가 없었다. 순종을 하는 체해 보이면서 때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사내가 소리를 하고 있을 때, 그 하염없고 유장한 노랫가락 소리를 듣고 있노라면 녀석은 그 잊고 있던 살기가 불현듯 되살아 나오곤 했다. 그는 무엇보다도 그 사내의 소리를 견딜 수가 없었다. 그리고 그 소리를 타고 이글이글 떠오르는 뜨거운 햇덩이를 참을 수가 없었다.

그는 사내의 소리를 들을 때마다 문득문득 기회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꼈다. 거기다가 사내는 또 듣는 사람도 없이 혼자서 자기 소리에 취해 들기 시작할 때가 종종 있었다. 산길을 지나다가 인적이 끊긴 고갯마루 턱 같은 데에 이르면 통곡이라도 하듯 사지를 풀고 앉아 정신없이 자기 소리에 취해 들곤 하였다. ㉡사내가 목청을 돋워 올리기 시작하면 무연한 산봉우리가 메아리를 울려오고, 골짜기의 산새들도 울음소리를 잠시 그치는 듯했다. 녀석이 어느 때보다도 뜨겁게 불타고 있는 그의 햇덩이를 보는 것은 그런 때의 일이었다. 그런 때는 유독히도 더 사내에 대한 견딜 수 없는 살의가 치솟곤 했다.

(중략)

(나)

사내는 이제 얼굴빛이 참혹할 만큼 힘이 빠져 있었다.

"그래 여자는 그럼 자기의 눈을 멀게 한 비정스런 아비를 어떻게 말하던가?"

몇 잔째 거푸 술잔을 비우고 난 사내가 이윽고 다시 조용한 목소리로 여인에게 물어 왔다.

"그 여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답니다."

사내 앞에선 이제 더 이상 숨길 일이 없다는 듯 여인의 말투가 한결 고분고분해지고 있었다.

"여자가 말한 일이 없더라도 평소에 아비를 대하는 거동 같은 것을 보아 그 여자가 제 아비를 용서하고 있는지 못 하고 있는지는 맘속으로 짐작해 볼 수가 있었을 것 아닌가 말이네."

빈틈 없이 파고드는 사내의 추궁에 여인은 거의 억지 짐작을 꾸며 대고 있는 식이었다.

"행동거지로만 본다면야 말도 없고 원망도 없었으니 용서를 한 것 같아 보였지요. 더구나 소리를 좀 안다 하는 사람들까지도 그걸 외려 당연하고 장한 일처럼 여기고들 있었으니께요."

"그 목청을 다스리기 위해 눈을 멀게 했을 거라는 얘기 말인가?"

㉢"목청도 목청이지만, 좋은 소리를 가꾸자면 소리를 지니는 사람 가슴에다 말 못할 한을 심어 줘야 한다던가요?"

"그래서 그 한을 심어 주려고 아비가 자식 눈을 빼앗았단 말인가?"

"사람들 얘기들이 그랬었다오."

"아니지…… 아닐 걸세."

사내가 다시 고개를 천천히 가로젓고 있었다.

[B] "사람의 한이라는 것이 그렇게 심어 주려 해서 심어 줄 수 있는 것은 아닌 걸세. 사람의 한이라는 건 그런 식으로 누구한테 받아 지닐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인생살이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긴긴 세월 동안 먼지처럼 쌓여 생기는 것이라네. 어떤 사람들한텐 외려 사는 것이 바로 한을 쌓는 일이고 한을 쌓는 것이 바로 사는 것이 되듯이 말이네…… 그보다도 고인한테 좀 미안한 말이지만, 노인은 아마 그 여자의 소리보다 자식년이 당신 곁을 떠나지 못하게 해두고 싶은 생각이 앞섰을는지도 모르는 일일 거네."

여인은 드디어 입을 다물어 버리고 말았다. 사내는 이제 그 여인이 알아듣거나 말거나 아직도 한참이나 깊은 상념 속을 헤매듯이 아득하고 몽롱한 목소리로 혼잣말처럼 중얼거리고 있었다.

"하지만 어쨌거나 그 여자가 제 아비를 용서한 것은 다행한 일이었을지 모르는 노릇이지. 아비를 위해서도 그렇고 그 여자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고…… 여자가 제 아비를 용서하지 못했다면 그건 바로 원한이지 소리를 위한 한은 될 수가 없었을 거 아닌가. 아비를 용서했길래 그 여자에겐 비로소 한이 더욱 깊었을 것이고……."

여인이 문득 다시 사내를 건너다보았다.

㉣"손님께서도 아마 그렇게 믿어야 마음이 편해지시는가 보군요."

그리고 여인은 그제야 사내가 안심이 된다는 듯 모처럼만에 웃음을 한 차례 보이고 나더니 이번에는 별로 망설이는 기색도 없이 스스럼없이 물어 왔다.

㉤"그래, 손님께선 이제 그 여자가 장님이 되어 버린 것을 아시고도 여전히 그 누이를 찾아 헤매 다니실 참인가요?"

— 이청준, 「서편제」 —

19. (가)와 (나)의 서술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가)는 간결한 문체로 과거의 사건에 대한 인물의 심리를 제시하여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다.

② (나)는 인물의 내적 독백을 사용하여 소설 내에서의 시간의 흐름을 지연시키고 있다.

③ (나)와는 달리, (가)는 상징을 적절히 활용하여 중심 소재의 내포적 의미망을 넓히고 있다.

④ (가)와는 달리, (나)는 인물들 간의 문답을 위주로 하여 사건의 경과를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⑤ (가)와 (나)는 모두 인명 대신에 통칭을 사용하여 인물들 사이의 관계를 모호하게 표현하고 있다.

20. ⓐ와 ⓑ의 관계를 설명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에게 ⓑ는 행복했던 어린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매개체이다.

② ⓐ에게 ⓑ는 가족이 지닌 문제점을 해소시켜 주는 매개체이다.

③ ⓑ는 ⓐ가 고통스러워 했으면서도 결코 떠날 수 없는 세계이다.

④ ⓑ는 ⓐ가 지향하는 세계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매개체이다.

⑤ ⓑ는 ⓐ의 잠재된 정신적 상처를 치유시켜 줄 수 있는 세계이다.

21.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 : '계집아이'가 '아비'의 소리하는 능력을 어느 정도 물려받았음을 의미한다.

② ㉡ : '옛날 사내'의 소리가 매우 뛰어나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이었음을 의미한다.

③ ㉢ : 소리와 한의 관계에 대한 항간의 미학적 인식을 물음의 방식으로 제시하는 것으로, 작가가 무엇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알려준다.

④ ㉣ : 화젯거리와 관련해 '여인'과 '사내'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고, '여인'이 '사내'의 정체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음을 알려준다.

⑤ ㉤ : '여인'이 '사내'의 사정을 이미 어느 정도 짐작한 상태에서 대화를 진행하여 왔음을 알려준다.

22. <보기>는 이청준의 소설에 대한 어느 평론가의 견해를 간추린 것이다. <보기>를 참고하여, [A]와 [B]를 이해하고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보기>

이청준은 언어가 존재의 실체나 삶의 실상에서 벗어나 획일적인 공리성이나 폭력적이고 타율적인 질서로 타락해 가고 있다고 여겼다. 그래서 그는 '남도 사람' 연작에서는 판소리 세계를 통해, 삶의 실체를 배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말과 삶이 하나로 어우러져 새로운 삶의 질서를 창조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서편제」는 '남도 사람' 연작의 첫 번째 작품이다.

① [A]에서 '어린 사내 녀석'이 '아비'의 뜻을 따를 수 없었던 것으로 보아, 그가 속했던 세계는 말과 삶이 분리된 세계이었군.

② [A]에서 '어린 사내 녀석'이 '사내의 소리'를 증오하는 것은 소리의 미학적 세계에 대한 두려움으로 볼 수 있군.

③ [B]에서 '사내'가 '그 여자'가 장님이 된 사정을 다른 데에서 찾는 것은 그가 과거의 갈등을 어느 정도 극복했음을 뜻하는군.

④ [B]에서 '사내'가 원한과 한을 구별하는 것으로 보아, '사내'는 말과 삶이 분리되지 않은 세계의 특징을 어느 정도 알고 있군.

⑤ [A]와 [B]로 보아, 작가는 판소리로 대변되는 소리의 세계가 지닌 가능성을 가족 간의 갈등을 통해 탐색하였군.

23. <보기>는 「서편제」와 연작 관계에 있는 「선학동 나그네」의 한 대목이다. (나)의 '여자'가 <보기>의 '여자'라고 가정할 때, 「선학동 나그네」의 창작 의도를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여자는 노인에게 묻고 나서 자신은 방금 눈 앞으로 날개를 펴고 떠오르는 학을 굽어보고 있기라도 한 듯 머릿속 정경을 그려 보이고 있었다.

"포구에 물이 가득 차오르면 건너편 관음봉이 물 위로 내려와서 한 마리 학으로 날아오르질 않겠소. 어르신도 그걸 볼 수가 있으시겠소?"

"그래 인제는 나도 보이는 듯싶네. 이 포구에 물이 차오르고 건너편 산이 그 물 속에서 완연한 학으로 떠오르는 듯싶으네……."

노인은 한사코 여자의 뜻을 따라 자신의 눈과 귀를 순종시키고 싶어하는 대답이었다.

그러자 여자는 정작으로 그 비상학을 좇듯이 보이지도 않는 눈길로 벌판 쪽을 한참이나 더듬어 대고 있었다. 그러다 그녀는 비로소 채비가 완전히 끝난 노인 쪽을 돌아보며 비탄조로 말했다.

"아배의 소리는 그러니께 그 시절에 늘 물 위를 날아오른 학과 함께 노닐었답니다."

주인사내로선 갈수록 예사롭지 않은 소리들이었다. 눈 아래 들판엔 이제 물도 없고 산그림자도 없었다. 게다가 여자는 어렸을 적 그녀가 그 아비와 함께 이곳을 왔을 때라 하더라도 그녀가 정작으로 물이나 산그림자를 보았을 리 없었다. 하지만 여자는 눈을 못 보기 때문에 오히려 성한 사람이 볼 수 없는 물과 산그림자를 보고 있는지도 몰랐다. 두 눈이 성해 있는 사람이라면 그 말라붙은 들판에서 있지도 않은 물과 산그림자를 볼 리가 없었다. 있지도 않은 물과 산그림자를 본 것은 그녀가 오히려 앞을 못 보는 맹인이기 때문이었다.

① 「서편제」와 마찬가지로, 전통사회의 문제점을 비판하려고 하였군.

② 「서편제」와 마찬가지로, '아배의 소리'에 대한 반감을 강조하려고 하였군.

③ 「서편제」와는 다르게, 인간관계의 비정함을 파헤치려고 하였군.

④ 「서편제」와는 다르게, 1인칭 주인공 시점을 사용하여 내면적 진실성을 확보하려고 하였군.

⑤ 「서편제」에서의 문제의식을 삶의 이면에 대한 통찰 문제로 확대시켜 나가려고 하였군.

[24～2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장마가 끝나기를 손꼽아 기다렸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푹푹 찌는 더위가 우리를 괴롭힙니다. 장마에 필수가 우산이지만 불볕더위의 필수품은 무엇일까요? 부채라고 답하기도 하겠지만 선풍기나 에어컨이라 답하는 이들도 있겠지요. 그게 무엇이든 '바람'과 관련이 있음에 틀림없습니다. 바람하면 날개를 연상합니다. '날개 잃은 천사'라는 말은 들어보셨겠지만 '날개 없는 선풍기'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요즘은 날개 없는 선풍기가 인기입니다. 보기에도 신기할 뿐 아니라 청소도 간편하고 무엇보다 어린이들이 날개에 손을 다칠 염려도 없답니다. 그래서인지 유사품까지 잘 팔릴 정도로 눈길을 끌고 있지요.

그런데 선풍기의 핵심인 날개가 없이 어떻게 바람을 일으킬 수 있을까요? 사실, 바람은 누구나 쉽게 만들어 낼 수 있어요. 넓적한 물건만 가지고 있으면 간단히 ⓐ부채질을 할 수 있지요. 이렇게 물체를 흔들 때 바람이 일어나는 이유는 우리 주변이 공기로 꽉 차 있기 때문이에요. 바람은 '공기의 움직임'인 것이에요. 그렇다면 자연적으로 부는 바람은 어떤 원리로 생기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릇에 쌀을 채운 뒤 손가락을 넣어 한쪽 방향으로 밀어보세요. 그럼 손가락으로 밀어낸 부분에 다시 주변의 쌀이 들어와 채워지는 걸 볼 수 있지요. 마찬가지로 공기도 밀려나거나 빠져나간 자리에 주변의 공기가 다시 채워지게 된답니다. 즉 공기의 이동은 공기가 많은 쪽에서 공기가 적은 쪽으로 일어나는 것이지요.

선풍기의 날개를 보면 반듯하지 않고 비스듬하게 누워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잠깐, 30㎝ 자를 손에 쥐고 칼날로 무언가를 베듯 공중에서 내리쳐 보세요. 힘은 별로 들지 않는 대신 바람이 거의 일어나지 않지요? 이번에는 자의 네모난 면이 여러분의 몸 앞쪽을 향하게 한 뒤 휘둘러보세요. 날로 내리칠 때보다 힘이 더 들지만 바람은 더 강하게 일어날 거예요. 선풍기 날개도 마찬가지예요. 날개가 기울어져야 공기와 맞닿는 면이 커져 바람을 제대로 일으킬 수 있어요. 그렇다면 자를 네모 면으로 휘둘렀을 때 공기와 마찰 면이 가장 커진 것처럼 선풍기 날개도 그런 각도로 기울이면 가장 센 바람이 나오지 않을까요? 맞는 말이지만 ㉠그렇게 하면 바람이 선풍기의 테두리 쪽으로 나오게 되니 효율성이 크게 떨어진답니다.



그런데 날개 없는 선풍기의 비밀은 바로 이 테두리에 있어요. 테두리 안의 공간은 텅 비어 있는데 이곳으로 공기가 이동한답니다. 아래쪽 모터에서 빨아들인 공기가 테두리 안을 돌면서 속도가 빨라지게 되고 테두리의 틈새로 뿜어져 나오는 방식이지요. 테두리 안의 공기가 바깥으로 나가면 주변의 공기가 그 안으로 빨려 들어오면서 다시 강한 바람을 밖으로 내뿜는 것이에요. 이때 밖으로 나오는 바람의 세기가 모터에서 빨아들인 공기보다 15배나 강하다고 해요. ㉡정말 놀라운 아이디어지요?

24. 위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불볕더위의 필수품 ② 바람을 일으키는 원리
③ 날개 없는 선풍기의 비밀 ④ 선풍기와 에어컨의 차이점
⑤ 과학 기술의 발달과 우리의 삶

25. ㉠을 바탕으로 추론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선풍기 날개는 공기와의 마찰면이 가장 넓은 방향으로 발전해 왔겠군.
② 선풍기 날개는 부채가 바람을 일으키는 원리를 응용해서 만들어졌겠군.
③ 선풍기 날개의 방향은 바람을 일으킬 때에 힘을 가장 덜 들이는 쪽으로 바뀌어 왔겠군.
④ 선풍기 날개의 각도는 여러 연구를 통해 바람을 효율적으로 일으킬 수 있도록 만들어졌겠군.
⑤ 선풍기 날개는 네모꼴이 가장 바람을 잘 일으키므로 네모꼴에서 적절히 변화한 방식으로 발전해 왔겠군.

26. ㉡의 이유에 대한 답을 쓰고자 할 때, 그것과 관련된 핵심 어구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날개와 바람 ② 고정 관념 깨뜨리기
③ 선풍기 바람의 세기 ④ 더운 여름철 시원하게 보내기
⑤ 공기의 움직임에 대한 인공적 조절

27. ⓐ의 '-질'과 의미 기능이 동일한 것을 <보기>에서 고르면?

<보기>

삽질, 걸레질, 목수질, 손가락질, 가위질

① 삽질, 걸레질, 가위질 ② 삽질, 걸레질, 손가락질
③ 목수질, 걸레질, 가위질 ④ 삽질, 목수질, 손가락질
⑤ 목수질, 손가락질, 가위질

【28～3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나의 지식이 독한 회의를 구하지 못하고
내 또한 삶의 애증을 다 짐지지 못하여
병든 나무처럼 생명이 부대낄 때
저 머나먼 아라비아의 사막으로 나는 가자

거기는 한번 뜬 백일(白日)이 불사신같이 작열하고
㉠일체가 모래 속에 사멸한 영겁의 허적(虛寂)에
오직 아라—의 신만이
밤마다 고민하고 방황하는 열사(熱沙)의 끝

그 열렬한 고독 가운데
옷자락을 나부끼고 호올로 서면
운명처럼 반드시 '나'와 대면케 될지니
하여 '나'란 나의 생명이란
그 원시의 본연한 자태를 다시 배우지 못하거든
㉡차라리 나는 어느 사구(沙丘)에 회한 없는 백골을 쪼이리라

— 유치환, 「생명의 서 일장(一章)」 —

(나)
나는 시방 위험(危險)한 짐승이다.
나의 손이 닿으면 너는
미지(未知)의 까마득한 어둠이 된다.

존재(存在)의 흔들리는 가지 끝에서
너는 이름도 없이 피었다 진다.
눈시울에 젖어드는 이 무명(無名)의 어둠에
추억(追憶)의 한 접시 불을 밝히고
나는 한밤내 운다.

나의 울음은 차츰 아닌 밤 돌개바람이 되어
탑(塔)을 흔들다가
돌에까지 스미면 금(金)이 될 것이다.

……얼굴을 가리운 나의 신부(新婦)여,

— 김춘수, 「꽃을 위한 서시(序詩)」 —

(다)

㉢단단한 것은 모두 녹이 슬었다
포(砲)들을 위장하듯 마음 구석구석에 감추어둔
감추고 검은 풀로 덮어둔
발화(發火)의 말뭉치들을 찾아보아라
여기저기 겨울 지난 거미줄들 날아다닌다
마른 풀들도 날아다닌다
마음의 뚜껑을 잠시 열고
옷깃 여미고
국도(國道) 벗어나 멀리 가지 못하고 주저앉은
마을을 벗어나 말없음을 벗어나
㉣더 큰 침묵을 향하여
걸어가 보아라
지리산 중턱에는 아직 눈과 바람이 남아 있지만
강 건너 복숭아밭의 검은 줄기들은
㉤꿈의 문자(文字)들처럼 싱싱하다
싱싱하다, 생전 처음 보는 낙서처럼 신나게
읽어 보려무나
┌ 물가에 신발 가지런히 벗어놓고
│ 전쟁 예보와 비누로 더러워진 옷도 벗어놓고
│ 마음은 뚜껑 열린 채 내던져 놓고
└ 뒤돌아보지 않고
[A] 눈 감고 혼자 초봄 저녁 강을 건너는 자의
┌ 뼈 시린, 뼈 시린 따스로움,
│ 돌들이 걸린다
│ 발가락들이 전부 살아 있었구나, 속삭이듯
└ 속삭이듯 길 하나 없는 이 길의 편안함.

— 황동규, 「눈 감고 섬진강을 건너다」 —

28.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명사형으로 시행을 마무리하여 여운을 자아낸다.
② 공간 이동과 관련된 표현들로 현장감을 살려 낸다.
③ 특정한 시어들을 반복하여 화자의 고조된 감정을 나타낸다.
④ 계절과 관련된 어휘를 사용하여 시의 주제의식을 부각시켜 낸다.
⑤ 화자 자신과 관련된 상황을 초점으로 하여 삶의 태도를 드러낸다.

29. 열렬한 고독과 나의 울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열렬한 고독'은 인간은 누구나 근원적으로 고독한 존재임을 의미한다.
② '열렬한 고독'과는 달리, '나의 울음'에는 자아를 인식하려는 화자의 욕망이 내포되어 있다.
③ '열렬한 고독'은 부정적인 것으로, '나의 울음'은 긍정적인 것으로 화자들에게 인식되고 있다.
④ '나의 울음'은 화자가 현실에서 타자로 인해 어떤 개인적 상실감을 지니게 되었음을 나타낸다.
⑤ '열렬한 고독'과 '나의 울음'은 모두, 화자에게는 그가 지향하는 바에 도달하려면 필요로 할 수밖에 없는 방법과도 같다.

30. (나)의 화자와 <보기>의 화자가 동일인이라고 가정할 때, (나)와 <보기>에 대한 감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시(詩)를 잉태한 언어는/ 피었다 지는 꽃들의 뜻을
든든한 대지처럼/ 제 품에 그대로 안을 수가 있을까,
시를 잉태한 언어는/ 겨울의
설레이는 가지 끝에/ 설레이며 있는 것이 아닐까,
일진(一陣)의 바람에도 민감한 촉수를
눈 없고 귀 없는 무변(無邊)으로 뻗으며
설레이는 가지 끝에/ 설레이며 있는 것이 아닐까,

— 김춘수, 「나목(裸木)과 시」 —

① (나)와 <보기> 모두에서 계절의 분위기를 실감할 수 있어.
② (나)의 '미지의 까마득한 어둠'은, <보기>의 '대지'가 지닌 속성이라고도 할 수 있어.
③ (나)의 '한밤내 운다'와 <보기>의 '설레이는'은 모두, 화자의 처지를 드러내면서 작품의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어.
④ (나)의 '얼굴을 가리운'은, <보기>의 '무변'이 지닌 속성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⑤ (나)로 보아, <보기>의 화자는 시인으로서의 자신의 처지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드러내고 있어.

31. <보기>를 참고하여 [A]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황동규의 초기 시는 꿈과 현실 세계 사이의 괴리와 관련된 비극적 세계관을 주조로 하였다. 하지만 1970년대 중반 무렵부터 황동규의 시는 이전보다 밝고 건강한 세계로 나아가려는 변화의 조짐을 보여주었다. 주로 겨울의 세계를 노래하여왔던 시인은, 자연의 본성을 통해 삶의 희열이 넘치는 밝고 조화로운 세계를 노래하려고 하였다. 이런 변화는 1980년대에 발표된 「눈 감고 섬진강을 건너다」에서도 잘 나타난다.

① 물가에서의 화자의 행동은 현실 세계에서 벗어나려는 시인의 태도를 표현한 것으로 느껴져.
② '전쟁 예보'와 '비누로 더러워진 옷'은 현실 세계가 지닌 부정적인 면모를 나타내주는 표현들이야.
③ '뒤돌아보지 않고'와 '초봄 저녁 강을 건너는 자'에서는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려는 시인의 태도가 강하게 느껴져.
④ '뼈 시린 따스로움'과 '길 하나 없는 이 길'에서의 긍정적 태도는 시인의 변화를 드러내는 것으로 볼 수 있어.
⑤ 강을 건너고 있는 화자의 모습에서는 현실 세계에 당당하게 대응하려는 시인의 태도가 느껴져.

32.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 : 생명체가 존재할 수 없는 극한의 상황을 가리키는 것으로, 화자가 극복해야만 하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드러낸다.
② ㉡ : 뉘우치고 한탄함이 없는 죽음을 택하겠다는 것으로, 화자의 결연한 내면적 태도를 드러낸다.
③ ㉢ : 금속성 물질의 속성을 활용하여 표현한 것으로, '발화의 말뭉치들'로 이어지면서 내면에 근거한 언어가 무력해졌음을 드러낸다.
④ ㉣ : '말없음'의 세계보다 더 심화된 세계로 나아가기를 권유하는 것으로, '읽어 보려무나'로 이어지면서 화자가 외부 세계와의 소통을 열망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⑤ ㉤ : 꿈의 언어적 특성을 문자와 관련시켜 감각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생전 처음 보는 낙서처럼'으로 이어지면서 화자가 추구하는 언어가 어떤 것인지를 드러낸다.

[33～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언어는 경제적, 문화적, 정치적 이유로 ⓐ명멸(明滅)한다. 물론 소수 민족의 언어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유럽의 다수 언어들은 대부분 동쪽으로부터 비롯된 다양한 양상의 침입에 의해 소수 언어였던 인도유럽어로 언어 교체가 일어나기도 하였다. 끔찍한 재해로 인해 언어가 소멸되는 경우는 생각보다도 드물다. 아득한 옛날에는 살인·질병·파문 등이 언어 상실의 주된 요인이었겠지만 세월이 흘러갈수록 그것은 자발적일 때가 많은데 500여 년에 걸친 식민지 상태를 겪은 라틴 아메리카 사람들은 대부분 스페인어를 구사한다. 우월한 외부 세력과 접촉이 되면 세계 어디에서나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식들의 ⓑ안위(安危) 때문에, 또한 출세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런 상황에 적응시키려고 노력하는 경향이 있다. 흔히 2개 국어를 쓰도록 독려하거나 ⓒ용인(容認)하는 사람들이 그런 부류이다.

그런데 아이들은 나중에 새로 선택한 언어만 쓰게 되는 경우가 흔하다. 언어 교체가 가져오는 직접적인 소득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원래의 언어를 포기하는 사람들은 예외 없이 민족적 정체성을 상실한 느낌, 중심부나 자국의 중앙 권력에 의한 패배감, 조상을 배신했다는 자책감을 느끼게 마련인데 이것은 전통·관습·행동 양식뿐 아니라 구술 역사·합창곡·신화·종교·전문 용어 등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 역사가 오래된 사회는 붕괴될 수밖에 없고 그 이후의 새로운 언어가 그 공백을 메우지 못할 때가 많다. 이에 따라 잃어버린 세대들은 새로운 정체성, 즉 가치 있는 무언가를 찾아 헤매게 된다.

언어 교체의 대안은 영구적인 2개 국어의 사용이다. 사람들은 모든 외부인들과 의사소통하기 위해 영어나 스페인어 같은 국제적 언어를 적극적으로 쓰는 한편, 자기들끼리는 토착어를 꾸준히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것도 인구가 많을 때에는 효과적이지만 인구가 적을 때는 주류 언어로 대체되기 십상이다. 진정한 소수 언어, 예를 들어 약 2만 명 이하의 사람들이 쓰는 언어는 완전히 격리된 상태가 아닌 다음에야 그것을 보존하기가 어렵다. 어떤 사람들은 동식물종의 다양성을 유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문화적 다양성이 ⓓ고갈(枯渴)되어버린 세상을 맞이하지 않기 위해서 인류는 언어 다양성을 반드시 간직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각 문화는 적응하고 생존하기 위해 변화한다. 이것은 상실이라기보다 사회적 진화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멸종 위기의 언어를 보존하려는 열의는 그 언어를 쓰는 원주민 사회보다도 외국 언어학자들이 훨씬 더한 경우가 많다. 과학적 연구를 위해서는 가능한 수단을 동원하여 그 언어를 기록으로 남겨야 겠지만 일단 숨을 거둔 언어는 소생하기가 어렵다. 대부분의 언어학자들은 언어의 대량 멸종이 ⓔ예견(豫見)된 결론이라고 본다. 그것은 인류가 새로운 지구촌 사회를 위해 치러야 할 대가이기도 하다.

33.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① 언어의 다양성이 사라지는 것은 사회적 진화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
② 소수의 언어와 다수의 언어가 충돌할 때에 다수의 언어만이 경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아니다.
③ 소수 언어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때에 따라서 그 언어를 주류 언어와 분리시키는 방법이 효과적이다.
④ 후세대들의 안정적인 미래를 위해서 기성세대들이 자발적으로 토착어를 버리고 주류 언어만을 사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⑤ 자발적으로 토착어를 버린 세대들은 민족적 정체성에 대한 상실감이나 조상에 대해서 배신을 했다는 자책의 감정에 사로잡히는 경우가 많다.

34. ⓐ～ⓔ 중, 사전적 의미를 잘못 풀이한 것은?

① ⓐ : (불빛 따위가) 켜졌다 꺼졌다 함.
② ⓑ : 위로하여 마음을 편안하게 함.
③ ⓒ : 너그럽게 받아들여 인정함.
④ ⓓ : 물이 말라서 없어짐.
⑤ ⓔ : 일이 있기 전에 미리 앎.

35. 새로운 지구촌 사회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전통적인 문화가 잘 보존된 사회
② 잃어버린 세대들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적인 사회
③ 사람들이 외부인과 의사소통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사회
④ 끔찍한 재해로 인해 언어가 소멸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는 사회
⑤ 과학적인 연구를 위하여 멸종 위기의 언어를 살리려는 열의가 있는 사회

36. 위 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보기>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한다. 글쓴이의 관점에 따른 문제 해결 방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전례 없는 추세로 사라지고 있는 것은 비단 언어만이 아니다. 방언도 같은 운명을 맞고 있다. 각 언어의 지역 방언들은 정부가 대중매체에서 통용되도록 선택한 중앙 방언에 백기를 들고 있다. 이 같은 언어 다양성의 평준화는 열대 우림의 파괴에 비견할 만하다.

① 지역 방언을 사용하는 라디오 채널을 운영하여 지역 사람들끼리의 지역 방언 사용을 권장한다.
② 표준어 사용자와 방언 사용자 간의 교류를 확대하여 의사소통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
③ 과학적인 연구를 통해서 지역 방언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지역 방언을 중앙 방언 사용자들에게 교육한다.
④ 지역 방언을 시대에 맞게 개량하여 지역 방언이 중앙 방언에 흡수되는 일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한다.
⑤ 사회적 진화의 결과로 지역 방언이 사라질 것에 대비하여 표준어권의 언어학자들에게 문제의 심각성을 고취시킨다.

【37～4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명사(鳴沙)길 니근 물이 취션(醉仙)을 빗기 시러,
바다흘 것퇴 두고 힉당화(海棠花)로 드러가니,
㉠빅구(白鷗)야 ᄂᆞ디 마라, 네 버딘 줄 엇디 아ᄂᆞᆫ.
금난굴(金蘭窟) 도라드러 총셕뎡(叢石亭) 올라ᄒᆞ니,
빅옥누(白玉樓) 남은 기동 다만 네히 셔 잇고야.
공슈(工垂)의 셩녕인가, 귀부(鬼斧)로 다ᄃᆞᆷ가.
구ᄐᆞ야 뉵면(六面)은 므어슬 샹(象)톳던고.
고셩(高城)을란 더만 두고 삼일포(三日浦)롤 ᄎᆞ자가니,
단셔(丹書)ᄂᆞᆫ 완연(宛然)ᄒᆞ딕 ᄉᆞ션(四仙)은 어딕 가니,
예 사흘 머믄 후(後)의 어딕 가 ᄯᅩ 머믈고.

션유담(仙遊潭) 영낭호(永郎湖) 거긔나 가 잇ᄂᆞᆫ가.
쳥간뎡(淸澗亭) 만경딕(萬景臺) 몃 고ᄃᆡ 안돗던고.
니화(梨花)ᄂᆞᆫ 불셔 디고 졉동새 슬피 울 제,
낙산(洛山) 동반(東畔)으로 의샹딕(義相臺)예 올라 안자,
일츌(日出)을 보리라 밤듕만 니러ᄒᆞ니,
샹운(祥雲)이 집픠ᄂᆞᆫ 동, 뉵뇽(六龍)이 바퇴ᄂᆞᆫ 동,
바다히 ᄯᅥ날 제ᄂᆞᆫ 만국(萬國)이 일위더니,
텬듕(天中)의 티쯔니 호발(毫髮)을 혜리로다.
아마도 ㉡녈구름 근쳐의 머믈셰라.
시션(詩仙)은 어ᄃᆡ 가고 힉타(咳唾)만 나맛ᄂᆞ니
텬디간(天地間) 장(壯)ᄒᆞᆫ 긔별 ᄌᆞ셔히도 홀셔이고.

(중략)

강능(江陵) 대도호(大都護) 풍쇽(風俗)이 됴흘시고,
졀효정문(節孝旌門)이 골골이 버러시니
비옥가봉(比屋可封)이 이제도 잇다 홀다.
진쥬관(眞珠館) 듁셔루(竹西樓) 오십쳔(五十川) ᄂᆞ린 믈이
태빅산(太白山) 그림재롤 동히(東海)로 다마 가니,
출하리 한강(漢江)의 목멱(木覓)의 다히고져.
[A] 왕뎡(王程)이 유한(有限)ᄒᆞ고 풍경(風景)이 못 슬믜니,
유회(幽懷)도 하도 할샤, 긱수(客愁)도 둘 ᄃᆡ 업다.
션사(仙槎)를 ᄯᅴ워 내여 두우(斗牛)로 향(向)ᄒᆞ살가,
션인(仙人)을 ᄎᆞᄌᆞ려 단혈(丹穴)의 머므살가.
텬근(天根)을 못내 보와 망양뎡(望洋亭)의 올은말이,
바다 밧근 하ᄂᆞᆯ이니 하ᄂᆞᆯ 밧근 므서신고.
ᄀᆞᆺ득 노한 고래, 뉘라셔 놀내관ᄃᆡ,
블거니 쓈거니 어즈러이 구ᄂᆞᆫ디고.
은산(銀山)을 것거 내여 뉵합(六合)의 ᄂᆞ리ᄂᆞᆫ ᄃᆞᆺ,
오월(五月) 댱텬(長天)의 ㉢빅셜(白雪)은 므ᄉᆞ 일고.
져근덧 밤이 드러 풍낭(風浪)이 뎡(定)ᄒᆞ거ᄂᆞᆯ,
부상(扶桑) 지쳑(咫尺)의 명월(明月)을 기ᄃᆞ리니,
셔광(瑞光) 쳔댱(千丈)이 뵈ᄂᆞᆫ ᄃᆞᆺ 숨ᄂᆞᆫ고야.
쥬렴(珠簾)을 고텨 것고, 옥계(玉階)롤 다시 쓸며,
계명셩(啓明星) 돗도록 곳초 안자 ᄇᆞ라보니,
㉣빅년화(白蓮花) ᄒᆞᆫ 가지롤 뉘라셔 보내신고.
일이 됴흔 세계(世界) ᄂᆞᆷ 대되 다 뵈고져.
뉴하쥬(流霞酒) ᄀᆞᆺ득 부어 ᄃᆞᆯᄃᆞ려 무론 말이,
영웅(英雄)은 어ᄃᆡ 가며, ᄉᆞ션(四仙)은 긔 뉘러니,
아ᄆᆡ나 맛나 보아 녯 긔별 뭇쟈 ᄒᆞ니,
션산(仙山) 동히(東海)예 갈 길히 머도 멀샤.

— 정철, 「관동별곡」 —

* 힉타(咳唾) : 기침과 침. 훌륭한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이나 글.
* 목멱(木覓) : 남산의 옛 명칭.
* 션사(仙槎) : 신선이 타는 뗏목. '울진'의 옛 지명이기도 함.
* 두우(斗牛) : 북두성과 견우성.
* 단혈(丹穴) : 고성 남쪽에 있는 굴. 신라 때 사선이 놀았다는 전설이 있음.
* 부상(扶桑) : 동쪽 바다의 해가 뜨는 곳.

(나)

[B] 구룸 빗치 조타 ᄒᆞ나 검기롤 자로 ᄒᆞᆫ다
ᄇᆞ롬 소릐 ᄆᆞᆰ다 ᄒᆞ나 그칠 적이 하노매라
조코도 그츨 뉘 업기ᄂᆞᆫ 믈 뿐인가 ᄒᆞ노라 <제2수>

쟈근 거시 노피 ᄯᅥ서 만물(萬物)을 다 뷔치니
밤듕의 광명(光明)이 [너]만ᄒᆞ니 또 잇ᄂᆞ냐
보고도 말 아니ᄒᆞ니 내 벋인가 ᄒᆞ노라 <제6수>

— 윤선도, 「오우가(五友歌)」 —

(다)

정자를 비[雨]로써 이름함은 기쁨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다. 옛날에 기쁜 일이 있으면 곧 그것으로 물건의 이름을 지었으니, 이는 잊지 않을 것을 나타내려 함이다. 주공(周公)은 벼를 얻고서는 그것으로 책의 이름을 지었고, 한무제(漢武帝)는 보정(寶鼎)을 얻고는 그것으로 연호(年號)의 이름을 지었고, 숙손(叔孫)은 적을 이기고는 그것으로 아들의 이름을 지었으니, 그 기쁨이 크고 작음은 같지 않으나 그 잊지 않음을 나타냄은 똑같다.

내가 부풍(扶風)에 부임한 다음 해에 비로소 관사를 손질하며 당(堂)의 북쪽에 정자를 짓고 못을 그 남쪽에 파고는 흐르는 물을 끌어 오고 나무를 심어 휴식하는 장소로 삼았었다. 그 해 봄 기산(岐山) 남쪽에 보리를 뿌리니 그 점괘가 풍년이었다. 그런데 이윽고 한 달이 되도록 비가 오지 않아 백성들이 바야흐로 걱정을 하였다. 3월 을묘일(乙卯日, 8일)에 비가 오고, 갑자일(甲子日, 17일)에 다시 비가 내렸는데 백성들은 아직도 부족하게 여겼다. 정묘일(丁卯日, 20일)에 ㉤큰 비가 내려 사흘 만에야 그치니, 관리들은 서로 뜰에서 경하하고, 상인들은 서로 시장에서 노래를 부르고, 농부들은 서로 들에서 손뼉 치며 기뻐하여, 근심하던 사람들은 즐거워하고 병든 사람들은 병이 나았는데, 내 정자가 이 때 마침 이루어졌다.

(중략)

이에 이것으로 정자의 이름을 짓고 또 따라서 다음과 같이 노래하였다.

[C] "하늘이 구슬을 뿌린들 추운 사람들은 그것으로 옷을 마련할 수 없으며, 하늘이 옥을 뿌린들 굶주린 사람들 그것으로 곡식을 삼을 수 없네. 한 번 비가 사흘이나 온 것은 그 누구의 덕일런가? 백성들은 태수 덕분이라 하나 태수는 그렇지 않다 하고는 그 덕을 천자(天子)에게 돌렸네. 천자께서 그렇지 않노라 하시며 그 덕을 조물주에게 돌렸네. 조물주는 자기 공이라 하지 않고 그것을 태공(太空)에게 돌리니, 태공은 아득하고 아득하여 이름할 수 없으니, 내 이로써 정자의 이름을 희우(喜雨)라 하노라."

— 소식(蘇軾), 「희우정기(喜雨亭記)」 —

37.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가)와 (나)는 자연물을 대상으로 하여 화자의 삶에 대한 태도를 드러낸다.
② (가)와 (다)는 자연물에 비유하여 화자의 정서를 드러낸다.
③ (나)와 (다)는 자연물에 인격을 부여해 현재의 인간 세태를 풍자한다.
④ (가), (나), (다)는 모두 자연물을 관조하여 새로운 통찰을 이끌어낸다.
⑤ (가), (나), (다)는 모두 자연물을 배경으로 하여 화자의 처지를 드러낸다.

38. <보기>는 「관동별곡」에 대한 어떤 글의 일부를 간추린 것이다. <보기>를 참고하여,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보기>

「관동별곡」은 정철이 강원도 관찰사로 부임하여 내·외·해금강과 관동 팔경을 유람한 후 쓴 기행 가사이다. 그런데 이 작품에서 정철은 자신을 선인(仙人)으로 여기는 자의식 곧 신선(神仙) 의식을 강하게 드러낸다. 어떻게 보면, 「관동별곡」의 구성과 표현은 이런 신선 의식을 구현하는 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할 수 있다. 「관동별곡」의 후반부는 특히 그러하다.

① 화자의 동해 여정은 작자의 자의식에 의해 취사선택된 것일 수도 있군.

② 화자가 자신을 '취션(醉仙)'으로 표현한 데에서 작자의 신선 의식이 단적으로 드러나는군.

③ 화자가 사선(四仙)'과 '시선(詩仙)'의 행방을 궁금해 하는 것은 작자가 신선 세계를 지향하고 있음을 드러내주는군.

④ '듁셔루(竹西樓)'에서의 화자의 태도는 작자가 신선 의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두루 알리고 싶어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군.

⑤ 화자가 '션산(仙山) 동히(東海)'로 가는 길이 매우 멀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아, 작자는 신선 세계와 현실 세계 사이의 거리를 인식하고 있군.

39. [A]와 [B]를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A]와 [B] 모두에서 대구가 드러난다.

② [A]와 [B] 모두에서 자연 친화적인 태도가 드러난다.

③ [A]는 [B]와는 달리 대조를 활용하여 중심 의미를 이끌어낸다.

④ [B]는 [A]와는 달리 억양법을 구사하여 대상의 특성을 드러낸다.

⑤ [A]에서는 화자의 내면적 갈등이, [B]에서는 화자의 내면적 단호함이 드러난다.

40. [C]를 이해하고 감상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화자는 '희우정'이라는 정자를 짓게 했던 일의 전말을 노래하고 있어.

② 화자는 비가 사흘 동안 내렸던 일을 두고서, '희우'를 그 일에 대한 적합한 표현으로 여기고 있어.

③ 화자는 비가 사흘 동안 내렸던 일을 두고서, 특정한 누군가에게 감사를 드려야만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

④ 화자는 연쇄적인 방식을 사용하여, 비가 사흘 동안 내렸던 일이 백성의 덕분임을 자연스럽게 이끌어내고 있어.

⑤ 화자는 대구의 방식을 사용하여, 춥고 배고픈 사람들에게는 보화가 어떤 경우에도 무용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어.

41. 화자와의 정서적 관계로 볼 때, ㉠~㉤ 중에서 (나)의 화자와 [너]의 정서적 관계와 가장 거리가 <u>먼</u> 것은?

① ㉠ 빅구(白鷗) ② ㉡ 녈구름 ③ ㉢ 빅셜(白雪)
④ ㉣ 빅년화(白蓮花) ⑤ ㉤ 큰 비

[42~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유전자 변형 식품 논쟁은 별개의 두 현안이 결합된 것이다. 하나는 유전자 변형 식품이 우리의 건강이나 환경에 위협이 되는가라는 순수한 과학적 질문이다. 다른 하나는 공격적인 다국적 기업의 행동과 세계화가 미치는 영향에 초점이 맞추어진 정치적, 경제적 질문이다. 유전자 변형 식품 문제를 올바르게 풀기 위해서는 정치적이나 경제적인 입장에서가 아니라 과학적인 입장에 서야 할 필요가 있다.

유전자 변형 식품의 반대론자들은 그것이 자연적이지 않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현재 남아 있는 극소수의 진정한 수렵 채집인들을 제외하고 엄격한 의미에서 자연의 음식을 먹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영국의 찰스 왕세자는 "유전자 변형은 인류가 신의 세계를 침범하는 것이다."라는 선언을 한 적이 있지만, 우리 조상들은 먼 옛날부터 그 세계에 있었다. 농민들은 오랜 옛날부터 서로 다른 종을 교배시켜서 자연에 없던 완전히 새로운 종을 만들어 왔다. 예를 들어 오늘날의 밀은 몇 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진 교배의 산물이다. 아인콘 밀이라는 야생 조상과 염소풀에 속한 한 종을 교배하자 에머 밀이 탄생했다. 오늘날의 밀은 이 에머 밀과 염소 풀에 속한 또 다른 종과 교배해 만든 것이다. 그것은 자연적으로 결코 만들어지지 않았을 특징들을 지니고 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식물들을 교배하면 유전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특징들이 생겨난다. 교배된 식물의 모든 유전자가 그것에 영향을 받아 예기치 않은 결과들이 나타나기도 한다. 반면에 생명 공학은 한 번에 유전자 하나씩, 식물 종에 새로운 유전 물질을 훨씬 더 정확하게 집어넣을 수 있다. <u>㉠유전적인 측면에서 볼 때에 기존의 농업이 커다란 쇠망치를 휘둘렀다면 생명 공학은 핀셋을 들고 있다.</u> 다국적 기업들이 인도 같은 나라의 가난한 농민들에게 끼칠 영향이 우려되기는 하지만, 뉴델리에 있는 유전자 운동 단체의 수만 사하이는 유전자 변형 식품 논쟁이 식량이 삶과 죽음의 문제가 아닌 나라들의 놀음일 뿐이라고 말한다. 그는 사람들이 말 그대로 굶어 죽고 있는 인도에서는 산악 지역에서 재배되는 과일의 60퍼센트가 시장에 도달하기도 전에 썩어버린다고 지적한다.

<u>㉡토마토를 만드는 데에 쓰인 유전자 변형 기술처럼 과일의 성숙 시기를 늦추는 기술이 얼마나 유용한지 상상해 보라.</u> 유전자 변형 식품의 가장 중요한 용도는 출생률이 높고 한정된 경작지에 과도한 생산 압력이 가해지면서 살충제와 제초제가 과다 사용되어 그런 농약을 뿌리는 농민과 환경 모두가 황폐해지고 있는 저개발국을 구원하게 될 것이다. 그런 나라에서는 영양실조가 삶의 한 측면이자 죽음의 한 측면이기도 하다. 그리고 해충이 작물들을 황폐화시키면 말 그대로 농민과 그 가족은 [죽음의 선고]를 받게 되는 것이다.

42.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u>않는</u> 것은?

① 찰스 왕세자는 유전자 변형 식품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한 바가 있다.

② 유전자 변형 식품 반대론자들은 유전자 변형 식품의 비자연성을 심각한 문제로 보고 있다.

③ 오늘날의 밀은 인공적으로 교배를 했다는 점에서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식물이라고 할 수가 없다.

④ 수만 사하이는 유전자 변형 식품 논란이 식량 문제가 절박하지 않은 나라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보고 있다.

⑤ 유전자 변형 식물을 개발하는 다국적 기업들의 행동과 세계화에 초점을 맞추어 유전자 변형 식품의 논쟁을 해결해 나갈 필요가 있다.

43. ㉠의 문맥적 의미를 고려할 때, '쇠망치 : 핀셋'의 대조적 의미와 가장 유사한 것은?

① 동쪽 : 서쪽 ② 주걱 : 젓가락 ③ 가전제품 : 텔레비전
④ 항해 : 나침반 ⑤ 금성 : 샛별

44. ㉡과 관련된 설명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유전자 변형 식품의 찬성론자 입장에서 서술한 것이다.

② 유전자 변형 식품이 영양실조를 개선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다.

③ 유전자 변형 토마토는 수익을 향상시키지만 환경 파괴를 가속화한다.

④ 과일의 성숙 시기를 조절하는 기술은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다.

⑤ 대체로 인구 밀도가 높은 곳에서 유전자 변형 기술이 더욱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45. [죽음의 선고]에 있는 '의'와 의미 기능이 동일한 것은?

① 노래의 날개 ② 겨레의 염원 ③ 다섯 자루의 연필
④ 질서의 확립 ⑤ 한국의 명승지

【46~5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한편, 시백이 아버지의 명을 거역하지 못하여 내외간에 함께 잠을 자려고 하였으나 부인을 보면 차마 얼굴을 대할 마음이 없어져서 부부간에 정이 점점 더 멀어져 갔다.

[A] 그러자 박씨가 초당의 이름을 피화당(避禍堂)이라고 써 붙이고 몸종 계화를 시켜서 뒤뜰 전후좌우에 갖가지 색의 나무를 심는데, 오색 흙을 가져다가 동쪽에는 푸른 기운을 따라서 푸른 흙을 나무뿌리에 북돋우고, 서쪽에는 흰 기운을 따라서 흰 흙으로 북돋우고, 남쪽에는 붉은 기운을 따라서 붉은 흙으로 북돋우고, 북쪽에는 검은 기운을 따라서 검은 흙으로 북돋우고, 중앙에는 노란 기운을 따라서 노란 흙을 북돋우고 때를 맞추어 물을 정성으로 주니, 그 나무들이 하루가 다르게 자라서 모양이 엄숙하고 신기한 일이 있어서 오색 구름이 자욱하고 나뭇가지에는 용이 서린 듯 잎은 범이 호령하는 듯 각색의 새와 무수한 뱀들이 변화가 끝이 없으니, 그 신기한 재주는 귀신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니, 무식한 사람이야 누가 알아보겠는가!

이때 공이 계화를 불러 말하기를,

"요사이 부인이 무엇을 하며 지내더냐?"

계화가 여쭙기를,

"후원에 갖가지 색깔의 나무를 심으시고 때를 맞추어 소녀로 하여금 물을 주어 기르라고 하셨습니다."

공이 듣고 계화를 따라 후원 좌우를 살펴보니 갖가지 색깔의 나무가 사면에 무성한데, 그 모양이 엄숙하여서 바로 보기 어려웠다. 그래서 계화를 붙들고 겨우 정신을 차려 보니 나무는 용과 호랑이로 변하여 바람과 비를 일으키려 하고 가지는 무수한 새와 뱀이 머리와 꼬리를 서로 맞물린 듯하여 변화가 무궁무진하므로, 공이 깜짝 놀라며 감탄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은 바로 신선이로다. 여자로서 이 같은 영웅의 큰 지략을 품었으니 신과 같이 밝은 재주를 헤아릴 수 없을 것이다."

하시고 박씨에게 묻기를,

"저 나무를 무슨 까닭으로 심었으며, 이 집의 이름을 피화당이라고 하였는데, 잘 모르겠구나. 무슨 까닭이냐?"

박씨가 여쭙기를,

"길한 것과 흉한 것과 재앙과 복은 사람에게 늘 있는 일이지만, 다음에 급한 일이 있어도 이 나무로 방비를 할 수 있을 것이므로 그래서 심었습니다.'

공이 그 말을 듣고 까닭을 물으니 박씨가 여쭙기를,

"또한 하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기인데 어떻게 하늘의 조화를 누설할 수 있겠습니까? 다음에 자연히 알게 되실 것이오니 남에게 말을 퍼뜨리지 마십시오."

공이 탄식하여 말하기를,

"너는 정말로 나와 같은 사람의 며느리가 되기에 아깝구나. 나의 팔자가 기박하여 도리를 모르는 자식이 아비의 가르침을 듣지 않고 부부간에 화목하고 즐겁게 지내지 않고 헛되이 세월만 보내고 있으니, 내 생전에 너희 부부가 화락하게 지내는 것을 보지 못할 것이다."

하며 한탄해 마지않았다. 박씨가 무릎을 꿇고 앉아서 위로하여 말하기를,

"저의 용모가 용렬하여 부부간에 화락한 즐거움을 모르는 것이오니 이것은 모두 저의 죄이므로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마는, 다만 제가 원하는 바는 남편이 과거에 급제하여 부모님께 영화를 보시게 하고 출세하여 자신의 이름을 세상에 드날리며 나라를 충성으로 도와서, 폭군이던 하나라 걸왕에게 올바른 말을 하였다는 용방이나 은나라 충신 비간이 오랜 세월 길이 이름을 날림을 본받은 후, 다른 집안에서 아내를 맞아 자손을 보고 아무 탈 없이 오래오래 살면 저는 죽어도 여한이 없겠습니다."

하는데 공이 그 말을 들으니 그 넓은 마음에 못내 감탄하며 더욱 불쌍하게 여기며 눈물을 흘리니, 박씨가 미안한 마음에 위로하여 말하기를,

"아버님께서는 잠깐만이라도 마음을 놓으십시오. 아무 때라도 설마 화목하게 지낼 때가 없겠습니까? 너무 근심하지 마십시오."

하였다.

(중략)

[B] 한편, 하루는 박씨가 목욕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가다듬어 껍질을 바꾸는 술법을 부려서 변화하니 허물이 벗어졌다. 날이 밝자 계화를 불러 들어오라 하니, 계화가 대답하고 들어가 느닷없이 예전에 없던 매우 아름다운 사람이 방 안에 앉아 있는데, 계화가 눈을 씻고 자세히 보니 아리따운 얼굴과 기이한 태도는 달나라 궁궐에 숨어 산다는 항아가 아니면 중국 무산에 살았다는 선녀라도 따르지 못할 것 같았다. 한 번 보고 정신이 아득하여 숨도 못 쉬고 멀찌감치 앉았는데, 박씨가 꽃과 달 같은 얼굴을 들고 붉은 입술을 반쯤 열어 계화에게 말하기를,

"내가 지금 껍질을 벗었으니 밖에 나가도 야단스럽게 다른 사람에게 떠벌리지 말고, 대감께 아뢰어 '옥으로 된 상자를 만들어 주십시오' 하여라."

계화가 명을 받들어 급히 바깥채로 나오며 기쁜 빛이 얼굴에 가득하므로 공이 반가워하며 묻기를,

"너는 무슨 좋은 일을 보았길래 그렇게 기쁜 빛이 얼굴에 가득하냐?"

계화가 아뢰기를,

"피화당에 신기한 일이 있으니 급히 들어가 보십시오."

공이 이상하게 여겨 계화를 따라 급히 들어가 방문을 열어 보니 향기로운 냄새가 코를 찌르며 한 소녀가 방안에 앉아 있는데, 아리땁고 화려하고 인품이 점잖고 정조가 곧아 보이는 것이 이른바 요조숙녀이고, 정말로 뛰어나게 아름다운 여인이라, 그 여자가 부끄러움을 머금고 일어나 맞는데 공이 또한 마음속으로 이상함을 이기지 못하여 오히려 아무 말 없이 쳐다만 보고 있으니, 계화가 상공께 아뢰기를,

"부인이 어젯밤에 허물을 벗으시고, 대감께 청하여 옥함을 구하여 쓸 곳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공이 그제야 가까이 나아가 말하기를,

"네가 어떻게 오늘 절대가인이 되었느냐? ㉠<u>천고에 본 적이 없는 이상한 일이로구나.</u>"

박씨가 고개를 숙이고 아뢰기를,

"제가 이제야 액운이 다 끝났기에 누추한 허물을 어젯밤에 벗게 되었으니, 옥함 하나를 만들어 주시면 그 허물을 넣어 두겠습니다."

공이 그 신기함을 감탄하고 즉시 나와 옥을 다루는 기술자를 불러 옥함을 만들어 며칠 만에 들여보내고 아들 시백을 불러 말하기를,

"얼른 들어가 네 아내를 보아라."

— 작자미상, 「박씨전(朴氏傳)」 —

* 피화당 - 화(禍)를 피하는 집.

46.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앞뒤의 사건들이 인과적으로 긴밀하게 서술되어 있다.
② 격의 없는 대화로 인물들 간의 친밀함을 드러내고 있다.
③ 주변인물을 통해 중심인물의 부정적인 면모를 드러내고 있다.
④ 인물들 간의 대화를 통해 앞으로 전개될 사건을 암시하고 있다.
⑤ 인물의 심리를 세밀하게 묘사하여 인물의 표리부동함을 드러내고 있다.

47. 위 글의 등장인물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추한 외모 때문에 '박씨'의 진가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시백'은 외모를 기준으로 여성을 대하는 자이다.
② '박씨'와 '시백'이 화락하지 못하고 있음을 애통해 하는 것으로 보아, '공'은 부부간의 화락과 화합을 소중하게 여기는 자이다.
③ 다른 인물과의 소통을 비롯하여 '박씨'가 시키는 일을 충직하게 수행하는 것으로 보아, '계화'는 '박씨'의 의중을 꿰뚫고 있는 자이다.
④ 추한 외모에 가려져 있던 '박씨'의 뛰어난 능력을 알아보는 것으로 보아, '공'은 사람의 됨됨이를 볼 수 있는 안목을 소유하고 있는 자이다.
⑤ 신기한 행적을 보이면서도 '시백'이 입신양명하여 부모에 효도하고 국가에 공헌하기를 바라는 것으로 보아, '박씨'는 신적인 면과 인간적인 면을 모두 지닌 자이다.

48. <보기>를 바탕으로 [A]를 이해하고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보기>

「박씨전」에는 인물을 형상화하는 데 무속적 요소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 산악숭배사상, 수목숭배사상, '박씨'의 변신 등은 그 중요한 무속적 요소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 중에서 수목숭배사상은 주역(周易)에서의 오행(五行)사상과 결합되어 있다. 그리하여 「박씨전」에서 수목은 하늘과 지상을 연결해 주는 신목, 즉 우주목(宇宙木)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① '박씨'가 '계화'를 시켜서 '피화당' 후원에 심은 나무는 무속적 숭배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② 후원 뒤뜰에 나무를 심으면서 사방과 중앙의 기운, 그 기운의 색깔을 고려한 데에는 주역의 오행사상이 반영되어 있다.
③ 뒤뜰에 심어진 나무들이 자라면서 보여주는 양상은 그것들이 신목임을 알려준다.
④ 후원의 나무들을 보고 난 '공'이 '박씨'의 정체성을 깨닫는 것은, 그가 '박씨'와 같은 부류에 속하는 존재임을 알려준다.
⑤ '공'의 물음에 대한 '박씨'의 대답은 우주목과 더불어서, '박씨'가 무속적 세계에 속하는 존재일 수 있음을 알려준다.

49. <보기>를 바탕으로 [B]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보기>

여성영웅소설도 영웅소설과 마찬가지로 혼란한 시대를 배경으로 하여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그 주인공인 여성영웅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특징들을 지닌다. 첫째, 여성영웅은 처음부터 그 영웅성을 드러내지는 않는다. 둘째, 여성영웅은 남장하기, 변복하기, 변신하기, 대리인 내세우기 등 우회적 방법을 전략적 방편으로 삼아 공적 영역에서 그 능력을 발휘한다. 셋째, 여성영웅은 대체로 아름다운 외모에 출중한 능력을 지닌 완벽한 존재로 등장한다.

① 국가적 혼란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 '박씨'는 변신의 우회적 방법을 사용하고 있군.
② '박씨'가 아름다운 외모를 지니게 되었으므로, '박씨'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평가도 앞으로는 달라지겠군.
③ 미색으로의 변신으로 보아, '박씨'의 추악한 외모는 그녀의 영웅성을 숨기기 위한 기제라고 할 수 있군.
④ 아름다운 외모의 소유자로 변신하는 것으로 보아, '박씨'는 변신 이후에 완벽한 존재로 태어나는군.
⑤ 변신 이전에 추악한 외모를 지니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박씨'는 여성영웅소설의 여느 주인공들과는 다른 면모를 지니고 있군.

50. ㉠을 바꾸어 쓴 표현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경천동지(驚天動地)로구나.
② 백년하청(百年河淸)이로구나.
③ 청천벽력(靑天霹靂)이로구나.
④ 유구무언(有口無言)이로구나.
⑤ 금시초문(今始初聞)이로구나.

※확인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